

엘리자베스 개스켈의 『북과 남』 속의 집단과 다중 연구*

윤 수 현
(경상국립대학교)

Yun, Suhyeon. "A Study of Groups and the Multitude in Elizabeth Gaskell's *North and South*."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0.1 (2024): 61-76. *North and South* presents various groups that either confront or cooperate with each other due to differences in terms of interests, regions, classes, gender, ideology, and religion. Each character belongs to more than one group such as northern industrialists versus southern parsons, factory owners versus workers, men versus women, paternalists versus liberals, atheists versus theists, city dwellers versus country folk, and rulers versus subjects. In this article, I use Hardt's and Negri's concept of the multitude to explore these groups. The multitude refers to any groups of individuals that take concerted action togeth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various multitudes in *North and South* and the attributes of individuals that belong to or deviate from these group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multitude, Elizabeth Gaskell, *North and South*, Micheal Hardt, Antonio Negri

I.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는 대중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중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권위적이게 느껴진다. 대중의 힘은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는데, 집단의식이 강화되어 개인일 때보다 도덕의식이 낮아지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1047).

고 타인에 대한 배척이 심해지기도 하는 반면, 집단연대로 또 다른 권력집단에 저항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기도 하다.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는 다수의 말을 따르는 방식의 집단의식에 쉽게 빠지지 않으며 속한 집단을 빠져나와 혹은 속한 집단을 변모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집단 속의 개체로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중(multitude)을 예로 든다. 그러면서도 다중은 하나의 개체, 혹은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 모인 집단을 지칭하기도 한다. 하트와 네그리는 이 다양한 개체들의 끊임없는 마주침과 마주침으로 인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권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권위로 인한 상하관계는 수시로 전복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엘리자베스 개스켈(Elizabeth Gaskell)의 『북과 남』(*North and South*)에서는 이러한 다중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다. 『북과 남』은 개스켈의 대표 장편 소설 중의 하나로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산업소설(industrial novel)로 분류한 이래로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어려운 시절』(*Hard Times*)과 함께 19세기의 공장 노동자의 삶을 현실감 있게 그린 소설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BBC에서 4부작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다시 한 번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에도 국내외에서 널리 읽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윌리엄스의 분석을 이어받아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설 속의 주인공 마거릿 헤일(Margaret Hale)이 가진 여성적인 가치를 높이 사고, 19세기의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공장주와 노동자의 관계와 연관시켜서 분석하는 페미니즘적인 관점으로의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왔다. 혹은 탈이론화를 주장하며 “영국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자와 사주간의 증오의 문제를 유니테리언 신앙의 형제애 개념으로 화해시키려 한 개스켈의 인본주의적 인간관을 축으로 해서 이 작품을 이해”(김정숙 174)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런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적 연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하트와 네그리의 다중에 대한 개념 적용을 통해 『북과 남』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기존의 연구에 더해 『북과 남』 속에서 근대사회에서의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려 한다. II장에서는 집단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인 정의를 살펴본 후, 마이클과 하트의 다중의 개념을 체계적

으로 짚어보려고 한다. 본론에서는 『북과 남』에서 개스켈이 집단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북과 남』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양극화된 집단의 대립을 그리고 있는데 개스켈은 현대사회의 집단이 가지는 복잡다단한 정체성을 다방면에서 그리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의 유동성과 전복에 초점을 맞추어 소설을 살펴보려고 한다. 어떻게 구체적인 개인이 집단 속에서 동화되어, 혹은 개인의 의지와 이성으로 떨어져 나와 삶권력(biopower)을 구축하고 새로운 힘을 이끌어 가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북과 남』의 주요 논점 중의 하나인 변이와 변동에 대해서도 더 명료하게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성폭력 미투, 학교 폭력 미투와 같은 사회 현상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유동적으로 권력에 대항하는 집단을 만들어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규율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다중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트와 네그리는 다중이 “다른 모든 신체의 마주침에 열려 있고 그 정치적 삶이 이 마주침의 질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즉 기쁜 마주침이기에 더 힘 있는 신체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슬픈 마주침이기에 힘이 덜한 신체로 해체되느냐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신체”(Common Wealth 82)라고 말한다. 즉, 기쁜 마주침으로 인해서 억압된 나의 신체활동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다중의 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은 기존의 대중, 민중과 달리 개인의 얼굴을 잊지 않고, 각기 다른 환경 속에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유일무이한 개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한다.

집단행동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만한 사실은 집단의 가면 뒤에 서서 피해자를 옹호하는 척 하면서 유명한 인사들이 추문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걸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집단의 페르소나 뒤에 숨으려고 할 때에는 원초적인 잔혹함이 깨어나기 마련이다. 『북과 남』에 나오는 다양한 집단은 이러한 집단의 양면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또한 집단의 그림자에 숨어 있는 전형적인 인물과 다양한 마주침을 통해서 삶을 개척하는 마가렛, 손튼, 프레더릭, 히긴스와 같은 인물들도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크게 대두되는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삶의 방향

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북과 남』에 나타난 다양한 다중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는 『제국』(*Empire*), 『다중』(*Multitude*), 『공통체』(*Commonwealth*)로 이어지는 세 권의 학술서적으로 현대 사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 『제국』은 국제사회가 영국과 같은 패권국가가 지배하던 시장에서 어떻게 초국적, 다국적 기업과 국가가 지배하는 세계로 넘어갔으며 전 세계가 단일한 유기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두 번째 책 『다중』은 국가와 종교처럼 전통적인 정체성을 결정짓는 단체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사람은 집단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집단에서 분리되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다. 마지막으로 『공통체』는 유기적이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집단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다. 엘리자베스 개스켈의 『북과 남』에는 이 세 권의 책 중 『다중』에 나온 다중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예가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다중』의 서문에서 현대까지 사용되었던 다수의 사람이 모인 집단을 지칭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다중이 그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다중은 서로 다른 문화,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서로 다른 노동 형태, 서로 다른 삶의 방식, 서로 다른 세계관, 서로 다른 욕망 등 결코 하나의 통일성이나 단일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무수한 내적 차이로 구성됩니다. 다중은 이러한 모든 고유한 차이의 집합체입니다.

The multitude is composed of innumerable internal differences that can never be reduced to a unity or a single identity—different cultures, races, ethnicities, genders, and sexual orientations; different forms of labor; different ways of living; different views of the world; and different desires. The multitude is a multiplicity of all these singular differences. (*Multitude* xiv)

위의 인용처럼 다중은 기존의 대중(masses), 사람들(people) 등 개개인이 모인 집단을 덩어리지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인식하는 개념들과 다르게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그렇지만 다중은 개인을 지칭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정서와 의식을 공유하며 하나의 집단을 형성한 것을 다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은 국적(nationality)이나 타고난 성별(sexuality)처럼 닫힌 구조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유동적이고, 다변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며 또 유기적으로 변형 및 와해가 될 수도 있는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네그리와 하트는 이러한 다중을 현대 사회에서 지배구조와 물질적인 요소 자본에 저항하는 힘으로 긍정하였는데, 다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권력구조의 결과물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노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되는 노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노동이 아니라 비물질적 노동을 말한다.

비물질노동은 보통 “노동”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일련의 활동들, 달리 말해, 문화적, 예술적 표준들, 유행들, 취미들, 소비규범들 그리고 더 전략적으로는 공공 여론 등을 정의하고 고정시키는 것에 수반되는 종류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한때는 부르주아지와 그 자녀들의 특권적 영토였으나 1970년대 말 이래로 이 활동들은 우리가 “대중지성”이라고 정의하기에 이른 것의 영토로 되었다. (『비물질노동과 다중』 182)

비물질노동은 정신적인 공동체를 창출하는 지성활동을 통해서 스피노자적인 정동(affect)을 일으킬 수 있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대중지성을 공유할 때 다중이 생겨날 수 있고, 그 대중지성이 세대 간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성별의 차이, 인종의 차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집단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승준은 『비물질 노동과 다중』에 포함된 에세이 『비물질노동과 새로운 주체성의 출현』에서 “‘대중지성’은 물질/비물질성의 존재적 구분 속에서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성/잠재성의 인식적 범주로 파악”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처럼 대중지성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다중이 품고 있는 잠재성으로, 다중을 형성하는 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중은 일련의 특이점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특이점이란 다름을 동일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주체, 즉 차이로 남아있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중은 파편화되거나 부정부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닌 복수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중은 특이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능동적인 사회적 주체를 지칭합니다. 다중은 내부적으로 다른 다수의 사회적 주체이며, 정체성이나 통일성(또는 무관심)이 아니라 공통점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행동합니다.

The multitude is composed of a set of singularities—and by singularity here we mean a social subject whose difference cannot be reduced to sameness, a difference that remains different... The multitude, however, although it remains multiple, is not fragmented, anarchical, or incoherent... The multitude, designates an active social subject, which acts on the basis of what the singularities share in common. The multitude is an internally different, multiple social subject whose constitution and action is based not on identity or unity(or, much less, indifference) but on what it has in common. (*Multitude* 99-100)

다중은 개개인이 가진 특이점들로 구성되어있지만 결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개개인의 특질 중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공통점은 다양한 비물질적인 것을 주제로 할 수 있다.

『북과 남』에서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국의 북부와 남부를 대변하는 다중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 나타난다. 크게 다섯 가지 형태의 대립각을 이루는 다중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 South(Margaret Hale) vs. North(Mr. Thornton)
- Factory Hands(Mr. Higgins) vs. Factory Owners(Mr. Thornton)
- Woman(Margaret) vs. Man(Mr. Thornton)
- Working-class(Bessy Higgins) vs. Upper-middle class(Margaret)
- Captain vs. Rebels(Frederick Hale)

먼저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전통적인 농촌사회를 대표하는 영국 남부의 가상의 도시 헬스톤(Helstone) 출신인 마가렛 헤일과 혁신적이고, 자본 중심적인 북

부 공업지대를 대표하는 영국 북부의 가상도시 밀턴(Milton) 출신인 손튼과의 대립이 전면에 드러난다. 영국 국교회의 목사인 헤일의 딸 마가렛은 헤일의 종교에 대한 회의로 인해 더 이상 고향인 웰스톤에서 살지 못하고, 밀턴으로 이주하게 된다. 헤일은 밀턴에서 가정교습을 하게 되고, 고전문학을 배우려는 손튼이 헤일의 학생으로 오게 된다. 손튼은 밀턴에서 자수성가한 방직 공장 사장이었는데 손튼과 마가렛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손튼은 마가렛이 도도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겼으며 마가렛은 손튼이 무례하고, 거칠다고 생각했다.

손튼은 북부 공업 지대를 대표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력, 고용주와 고용자, 공장주와 일꾼의 대립각 속에서 공장주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남부에서 온 마가렛은 처음에는 북부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지만 이들을 개별적으로 알게 될 기회가 생기면서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이들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히긴스를 들 수 있겠다. 히긴스는 밀턴의 공장 노동자 중의 한 명으로 지난 파업으로 아픈 아내를 잃고, 아픈 딸 베시와 아직 어리고 서툰 딸 메리를 데리고 사는 인물이다. 히긴스는 외골수적인 기질은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따뜻하고 의리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손튼은 또한 남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는데, 흔히 남성성¹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담함, 책임감, 기사 정신을 모두 갖춘 사람이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인 완고함, 편협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반면에 마가렛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모성애와 같이 높은 포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견어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다. 마가렛은 손튼과의 첫 대면 이후에 여러 번의 대화에서 고용자와 고용주의 갈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하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¹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 여성성은 학술적으로 고착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통념적으로 고착화된 개념으로서의 남성성, 여성성을 의미한다.

“당신은 하인에게 지출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돈을 사용할 때 경제적인 이유를 제시합니까? 자본의 소유자인 우리는 자본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라고 마가렛은 매우 낮게 말했다.

“Do you give your servants reasons for your expenditure, or your economy in the use of your own money? We, the owners of capital, have a right to choose what we will do with it.”

“A human right,” said Margaret, very low. (108)

손튼은 고용자가 고용주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고할 필요는 없고, 고용자도 고용자 나름의 고충을 가지고 사업체를 존속시킬 고민을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가렛은 서로가 더 잘 소통하고 이해하면 힘을 합쳐서 사업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파업이 일어났을 때 마가렛은 손튼으로 하여금 노동자들 앞에 나서서 대화하기를 촉구한다.

계층 간의 갈등도 드러나는데 마가렛과 베시가 그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가렛은 베시와 친해진 후 자주 베시에게 병문안을 가게 된다. 베시는 하층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펄펄 날리는 면화를 제대로 배출하지 않는 작업환경 때문에 폐병을 앓고 있는 침대 여자 아이이다. 베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마가렛의 방문으로 중산층인 마가렛의 삶을 엿보면서 부러워한다. 마가렛이 실크 드레스를 입고 손튼 택에서 열리는 만찬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면모를 보면서 계층 간의 다른 생활양식과 그에 대한 선망을 살펴볼 수 있다. 결국에 베시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 그 외에도 계층 갈등은 고용자와 고용주의 갈등에 얽여서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북과 남』의 주요 줄거리에 드러나는 내용은 아니지만 또 다른 갈등과 전복의 양상이 나타나는 다중이 있다. 마가렛의 밀턴에서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데 밀턴에 오자마자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리기 때문이다. 마가렛의 어머니는 죽기 전에 해군 장교였던 아들 프레드릭을 보고 싶어 한다. 프레드릭은 오래 전에 항해를 나갔다가 선원을 착취 및 학대하는 선장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다. 하지만 영국은 법으로 항해 중에 선장에게 반역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프레드릭은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죽을 운명에 처해진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기 전의 소원이 자신을 만나는 것이라 프레드릭은 죽음을 무릅쓰고 밀턴으로 오게 된다. 프레드릭은 압제에 맞서 싸우는 또 하나의 투사로 그려지고, 불합리한 법에 희생당하는 희생양으로도 그려진다.

III. 다중의 형성

『북과 남』에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다중적인 집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서로간의 갈등과 화해의 양상을 통해서 재구성되기도 한다. 가브리엘 타르드는 “발명, 모방, 기억, 공감”과 같은 개념이 다중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재인용 『비물질노동과 다중』 241). 발명은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집단에 속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고, 혹은 선망하는 대상을 모방하는 행위를 통해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모방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같은 기억을 가지고, 공유하고, 전해주는 것이 기억의 기능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인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이해하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라도 같은 경험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마가렛은 뺨이 상기되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판단할 때는 조심해야해, 베시. 나는 어머니께 돌아가야 해, 베시,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그 큰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 외에는 출구가 없어. 하지만 어머니의 실제 상태를 전혀 모르는 아버지께는 유쾌하게 말해야 하고, 그분께는 서서히 그 사실을 알려야 해. 나를 동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머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어머니를 만나러 오면 죽음의 위험에 처할 거야. 나는 잘 차려입고 먹을 게 충분하지만 어떻게 불안을 모르겠어? 오, 베시, 하나님은 공정해. 우리 영혼의 괴로움을 그분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몫은 그분께서 잘 나누어 줬어.”

“Take care,” said Margaret, her cheek flushing, and her eye lightening, “how you judge, Bessy. I shall go home to my mother, who is so ill—so ill, Bessy, that there’s no outlet but death for her out of the prison of her great suffering; and yet I must speak cheerfully to my father, who has no notion of her real state, and to who the knowledge must come gradually. The only person—the only one who could sympathise with me and help me—whose presence could comfort my mother more than any other earthly thing— is falsely accused—would run the risk of death if he came to see his dying mother… Do I not know anxiety, though I go about well-dressed, and have food enough? Oh, Bessy, God is just, and our lots are well portioned out by Him, although none but He knows the bitterness of our souls. (126)

『북과 남』에서 베시는 마가렛이 자신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부러워한다. 그때 마가렛이 자신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겨우 스무 살의 나이에 신념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죽음을 앞둔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고, 하나뿐인 오빠는 범죄자가 되어 영국 땅에 밭을 붙일 수가 없게 되었다는 실정을 말한다. 하느님이 “뭣”을 잘 배분해 주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고통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말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본래 개개인이 지워진 집단을 보면 집단이 가진 대표적인 이미지나 신념에 잠식되어 적대시하기가 쉽다. 하지만 개인을 하나씩 들여다볼 경우에는 각자의 사정 때문에 동정을 하기가 쉽다.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서로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베시와 마가렛은 다른 계층의 사람이지만 당대의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 있어 같은 여성적인 경험을 공유하기도 한다. 베시의 마지막 유언은 아버지 히긴스가 술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교회 여인 마가렛과 그녀의 아버지 이단자 히긴스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Margaret the Churchwoman, her father the Dissenter, Higgins the Infidel, knelt down together. It did them no harm. (215)

위의 장면은 베시가 죽고 난 이후에 마가렛이 베시의 유언대로 히긴스가 술집에 가지 못하게 막고, 대신 집으로 데려와서 헤일과 대화를 나누게 한 장면이다. 각기 다른 문화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베시를 잃은 슬픔을 공유하는 이 장면을 통해 개스켈은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다중적인 개개인의 화합을 묘사했다고 할 수 있겠다.

개스켈은 개인의 다각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개인의 내면적인 정체성도 하나로 고착화 될 수 없고, 심지어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그녀를 엿볼 뿐 그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너무 용감했고, 또 다른 때는 너무 소심했으며, 지금은 너무 부드러웠고, 그다음에는 거만하고 당당했습니다.

He only caught glimpses of her; he did not understand her altogether. At one time she was so brave, and at another so timid; now so tender, and then so haughty and regal proud. (192)

위의 인용은 손튼이 마가렛을 보고 하는 말이다. 손튼과 마가렛은 가치관이 서로 다른 인물로 그려져서 소설 초반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소설 중반부에서는 서로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고, 받아들이면서 편견을 거두고 그 자체로 보려고 한다. 손튼이 마가렛을 묘사하는 이 장면에서 마가렛은 일관적이기보다는 양가적이고, 다중적인 모습의 사람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묘사는 개스켈이 개인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모순성과 가변성을 나타내려고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하고 경청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계산은 (너무 많은 주인들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전체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의 동

료들이 기계의 계산 가능한 힘을 소유한 것처럼 여겼다. 바우처와 폭도들의 경우처럼 인간의 열정이 이성을 능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부상의 표현이 멀리 떨어진 낯선 이들에게도 (가상이든 실제든) 부상이 자신에게 가한 것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So they questioned and listened. The workmen's calculations were based(like too many of the masters') on false premises. They reckoned on their fellow-men as if they possessed the calculable powers of machines, no more, no less; no allowance for human passions getting the better of reason, as in the case of Boucher and the rioters; and believing that the representations of their injuries would have the same effect on strangers far away, as the injuries(fancied or real) had upon themselves. (210)

이복기는 『북과 남』이 “극한을 향해 치닫는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보다도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의 단절에서 찾고 있다”고 말하며 『북과 남』이 개인 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95-96). 위의 인용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처음에는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던 노동자와 공장주들이 소설의 후반부에 가서는 마가렛의 설득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 공장주는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공개하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공장 내외에서의 불편한 사항을 고용주에게 건의한다. 그러자 “열정이 이성을 능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열정이라기보다는 정서가 과잉되었을 때의 표출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서로 간에 소통하고 개개인으로 마주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였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열정을 이성이 누를 수 있다고 개스켈은 주장한다.

IV. 다중과 대중

자신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집단의 사람들을 개개인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집단 그 자체의 가상의 이마고(logo)를 형성하게 된다. 그것은 보통 용이 말한 원형 중에서 그림자 원형을 덧씌운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의 내부에 있던 불안을 상대에게 투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원초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자신의 내부에 있지만 인정할 수 없어 배출된 아브젝시옹(abjection)²도 있다. 그렇기에 대중은 잔인하다.

『북과 남』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형태의 원형이 잘 드러난다.

군중 중 다수는 그저 소년이었으며, 생각 없이 잔인했고, 일부는 늑대처럼 용맹하고 먹잇감에 미쳐 있는 남자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바우처처럼 당시 굶주린 아이들을 데리고 더 높은 임금을 받으려는 궁극적인 성공에 의존하고 있었고, 아일랜드 인들이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강탈하기 위해 데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깊이 분노하고 절망했다.

Many in the crowd were mere boys; cruel and thoughtless, —cruel because they were thoughtless; some were men, gaunt as wolves and mad for prey. She know it was; they were like Boucher,—with starving children at time—relying on ultimate success in their effort to get higher wages, and enraged beyond measure at discovering that Irishmen were to be brought in to rob their little ones of desperate and livid with rage. (162)

손튼은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진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공장주들의 배만 불린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시키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자 파업을 한다. 손튼은 노동자들을 설득하거나 협상을 하려고 하기보다 아일랜드에서 대체 인력을 데리고 오는 편을 선택한다. 아일랜드 인들로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동자들 중 일부는 분노에 차서 손튼의 공장을 습격하러 온다. 그때 우연히 손튼의 집에 있던 마가렛은 손튼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소통할 것을 권유하고, 손튼은 마가렛의 말을 듣고 성난 폭도들을 진정시키러 나간다. 그러나 성난 폭도들은 좀처럼 진정하지 않았고, 손튼은 위협에 처하게 된다. 손튼이 자기 때문에 위협에 처했

² 정신분석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용어, “주체가 상징적 질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절 한 정체성 형성을 위협한다고 여기는 더럽고 역겨운 것(아브젝트)을 추방하고 배제하는 심리적 현상”(『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33)

다는 것을 알아차린 마가렛은 밖으로 나가 손튼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지고 만다. 이 소식을 들은 노조 위원장 히긴스는 폭력 사건을 일으킨 무리들 때문에 파업이 망했다며 절망하고 만다.

같은 노조 집단 내에서도 그림자와 같은 무의식의 원형에 사로잡혀 타인을 맹목적으로 공격하고, 분노하는 몽매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파업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득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다. 개스켈은 이처럼 한 가지 이해관계에 묶인 집단이라고 해도 같이 묶여서 생각되어질 수 없고, 그 안에서 다변적인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분화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무모한 열정은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그들을 데리고 와버렸는데, 적어도 그들 중 일부는 확실히 너무 멀리 이끌었다. 잔인한 흥분을 좋아하는 야만적인 젊은 이들은 항상 폭동을 무모하게 이끌고 어떤 유혈 사태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Their reckless passion had carried them too far to stop—at least had carried some of them too far; for it is always the savage lads, with their love of cruel excitement, who head the riot reckless to what bloodshed it may lead. (163)

노조들의 파업의 양상을 드러내는 또 다른 문단을 살펴보면 개스켈은 “잔인한 흥분,” “야만적인,” “유혈 사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집단이 무의식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어떠한 양상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중이 대중으로 변모하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있었던 일이다. 개스켈은 개개인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다중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개개인이 지워진 대중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을 휘두른 바우처는 파업 후에 일자리를 얻지 못해 결국에는 냇물에 뛰어 들어 자살하고 만다. 바우처는 먹여 살려야 할 아픈 처와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었다. 히긴스와 마가렛은 바우처의 처자식을 불쌍히 여겨서 공동으로 부양한다. 남겨진 사람들이 공동체의 아래에 복속되는 결론을 통해서 개스켈은 다시 한 번 동정하는 마음과 공감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V. 나가는 말

『북과 남』은 19세기 영국의 산업 혁명의 시기를 그린 소설로서 산업 중심의 현대사회가 태동하던 때를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북과 남』에 나타난 다중 연구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다중의 양상 또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새로운 집단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와해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권력 관계로 집단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과 사회 관계망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동조 및 공감하며 여러 집단이 생겨난다.

『북과 남』 속에는 현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익관계, 지역, 계층, 성별, 이념, 종교 등등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대립하거나 협동하는 여러 집단을 복합적인 관점으로 나타낸다. 북부 공업지대와 남부 농장지대의 대립, 공장주와 노동자의 대립, 남성의 대립, 온정주의자(paternalist)와 자유주의자(liberalist)의 대립,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대립, 수도인 런던과 지방,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 본토인과 외부인과 같은 다양한 집단의 대립 속에서 각각의 등장인물은 하나 이상의 집단에 속해 각각의 집단을 대변하지만 결코 다른 개체와는 같지 않은 면을 보인다.

여기서 하트와 네그리가 말하는 다중의 개념이 들어올 수 있는데, 다중은 일회적이고 반복 불가능한 모양으로 존재에 관여하고 있고, 타자로 대체 불가능한 주체적인 객체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집단이 바로 다중인 것이다. 『북과 남』의 다양한 집단과 그에 속한 혹은 벗어나는 개인의 속성을 분석하며 이 개념에 대해 확실히 하고, 텍스트 연구의 층위를 한층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현재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 끊임없이 이동하는 권력 생성의 모습을 『북과 남』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Works Cited

Deleuze, Gilles, Antonio Negri, Jung Namyoung, et al. *Immaterial Labor and Multitude*. Trans. Self-reviewed Translation Group. Seoul: Galmuri. 2005, Print.

[질 들뢰즈, 안토니오 네그리, 정남영, 등. 『비물질 노동과 다중』. 자율평론번역모임 역. 서울: 갈무리, 2005.]

- Dickens, Charles. *Hard Times*. London: Bibliophile Books, 2000. Print.
- Gaskell, Elizabeth. *North and South*. New York: W. W. Norton&Company, Inc, 2005. Print.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Commonwealth*. Boston: Belknap P, 2011. Print.
- _____. *Empire*. Cambridge: Harvard UP, 2001. Print.
- _____. *Multitude*. New York: Penguin Books, 2005. Print.
- _____. "Postmodernization, or the Informatization of Production." *The Cultural Studies Reader: Third Edition*. Ed. Simon During. New York: Routledge, 2007. 189-201. Print.
- Joohyun, Park. "Stories of Industrial Pain as Told by the Factory 'Hand': Gaskell's Bessy Higgins as the Critic of the Factory System."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3.3 (2017): 445-63. Print.
- Jung, Carl. Gustav.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Trans. R. F. C. Hull. New York: Princeton UP, 1990. Print.
- _____.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Trans. R. F. C. Hull. New York: Princeton UP, 1977. Print.
- Kim, Chungsook. "A Non-Theoretical Reading of *North and South*." *British and American novel* 1 (1994): 169-92. Print.
 [김정숙, 「소설 읽기의 탈이론화를 위하여: 『북과 남』의 경우」. 『근대영미소설』 1 (1994): 169-192.]
- Lee, Bokki. "*North and South*: The Ineluctable Mutability and Accepting of It." *British and American Novel* 22.1 (2015): 95-113. Print.
 [이복기, 『남과 북』: 변화의 불가피성과 수용. 『근대영미소설』 22.1 (2015): 95-113.]
- McAfee, Noelle. *Julia Kristeva*. Trans. Lee Busun. Seoul: LP, 2010. Print.
 [맥아피, 노엘.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역. 서울: 엘피, 2010.]
- Spinoza, B. *Ethics*. Trans. Kang Younggye. Paju: Seoguangsa, 2010. Print.
 [스피노자, B. 『에티카』. 강영계 역. 파주: 서광사, 2010.]
-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New York: Columbia UP, 1983. Print.

윤수현 (경상국립대학교 / 강사)

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213길 21 103동 611호

이메일: kid1283@naver.com

논문접수일: 2024. 01. 05. / 심사완료일: 2024. 01. 31. / 게재확정일: 2024. 02. 15.